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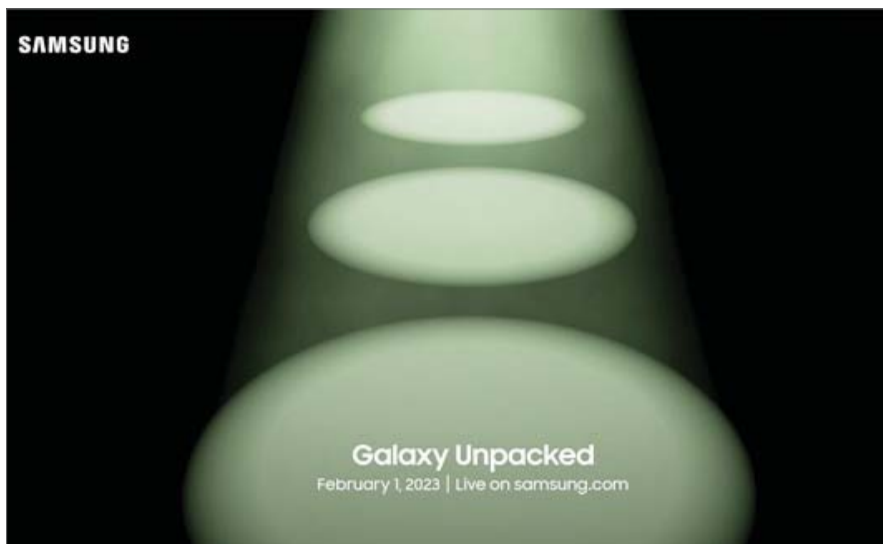
‘갤S23’ 100만원 넘을까... 역대급 성능에 판매가 인상설

삼성 신형 스마트폰 공개 임박
내달 중순 국내 정식출시 예측

역대급 카메라·배터리 기능에
원자재값·달러 강세 등 여파
전작대비 최대 20만원 오를 듯

삼성전자의 차기 플래그십폰 갤럭시 S23 출시가 한 달여 남은 가운데 해당 시리즈의 출고가가 상당 수준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전 수준의 가격으로 제공할 수 없는 대외적인 상황이 겹쳤고, 이러한 소식에 일부 소비자들은 갤럭시 S22로 눈길을 돌리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16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갤럭시 S23 시리즈는 미국 샌프란시스코 현지시간으로 2월 1일 ‘언팩 행사’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이번에 출시하는 갤럭시 S23 시리즈는 ▲기본(6.1인치) ▲플러스(6.6인치) ▲울트라(6.8인치)다. 통상 삼성전자는 언팩 행사 이후 일주일 동안 사전 예약을 진행하고 국내 정식 출시를 2월 중순 정도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삼성전자의 2023 갤럭시 언팩 초대장

/삼성전자

다만, 각 모델의 확정 가격은 아직 미정이지만 원자재 가격 상승과 달러 강세 영향을 피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외신과 틱터들은 갤럭시 S23 시리즈의 출고가가 갤럭시 S22보다 약 15만~20만원가량 비싸질 것으로 내다봤다. IT 전문 매체 샘모바일은 ▲일반형 119만9000원 ▲플러스 139만7000원 ▲울트라 159만9400원으로 구체적인 가격까지 제시하며 이목을 끌었다.

삼성전자는 S 시리즈 일반형 모델은

100만원이 넘지 않는 가격으로 판매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갤럭시 S21 일반형은 99만9900원 ▲갤럭시 S22 일반형은 99만9900원에 판매한 바 있다.

갤럭시 S23 시리즈는 카메라 기능의 향상과 배터리 향상 등 ‘역대급’으로 출시될 것으로 관측돼 소비자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하지만 이 또한 가격 상승의 원인이다.

가격을 인상의 대표적인 요인으로는 모바일 AP 가격 급등이다. 실제 삼성전

자 3분기 사업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1~3분기 모바일 AP 평균 구매가는 전년 동기 대비 80% 올랐다. 틱터들에 따르면 S23 시리즈 전체에 퀄컴의 ‘스냅드래곤8 2세대’가 탑재될 것으로 알려졌다.

배터리 용량은 일반과 플러스에서 각 3900밀리암페어시(mAh), 4700mAh로 전작대비 200mAh 증가할 것으로 관측된다. 울트라 모델은 갤럭시 S20부터 5000mAh 수준을 유지하는 모습이다.

이에 소비자들의 반응은 두 가지로 크게 나뉘었다. 이동통신사들의 공시지원금 확대에 갤럭시 S22 시리즈를 사게 낫다는 반응과, 신작인 갤럭시 S23이 프리미엄 폰으로서 가치가 있다면 투자하겠다는 반응이다.

이동통신사들은 갤럭시 S22 시리즈의 공시지원금을 최대 65만원으로 늘리며 가격 조정에 나섰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갤럭시 S22 울트라 256GB와 512GB 모델에 대해 요금제별로 각각 10만9000원~12만4000원, 3만2000원~5만원씩 올렸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은 최대 62만원, LG유플러스는 60만원까지 공시지원금을 제공한다.

KT는 통신3사 중 가장 높은 수준의 공시지원금을 지원한다. 갤럭시 S22 울트라 256GB와 512GB 모델에 대해 요금제별로 공시지원금을 3만~15만원씩 올렸다. 이에 따라 공시지원금은 33만~65만 원으로 조정됐다. 해당 공시지원금은 KT 11만원 요금제부터 적용된다.

업계 관계자는 “새로운 신작이 나올 때 전작 시리즈의 스펙을 따져 필요에 따라 전작을 선택하는 소비자는 항상 있었다”면서도 “경기 침체 환경과 스마트폰 출하량 감소 등 새로운 스마트폰에 투자할 여력이 많이 줄어든 상황이라 그 수가 더 많아질 수는 있다”고 예측했다.

그럼에도 삼성전자로서는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이 커지는 가운데 애플과의 격차를 좁히기 위해서라도 갤럭시 S23 시리즈의 ‘성공’은 필수다.

한 소비자는 “프리미엄폰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자리를 잡았으면 하는데 부품 원가절감 위주로 제품을 내놓지 않고 차라리 프리미엄 시장을 공략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남겼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김영범, 취임식 없이 전국 돌며 현장경영

(코오롱인더스트리 사장)

지방 사업장 7곳 연달아 방문
현장 밀착경영 통해 성장 의지

김영범 코오롱인더스트리 사장이 현장 소동으로 새해 일정을 시작했다.

코오롱인더는 최근 김 사장이 지방 사업장을 연달아 방문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대표이사로 내정된 후 별도 취임식도 없이 전국 7개 사업장을 돌아봤다.

김 사장은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임직원들과 오찬을 함께하며 의견을 경청했다.

김 사장은 현장 밀착형 경영 일환으로 지방 사업장을 찾았다. 이를 통해 현장경영을 내재화하고 확산하는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현장과 공고한 소통 협력 체제를 구축해 ▲에너지 절감 ▲



김영범 코오롱 인더스트리 사장

품질 경쟁력 강화 ▲설비 경쟁력 제고를 실현하고 지속가능한 고부가가치 소재사업 발전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앞서 김 사장은 신년사에서 현장 중심 성장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마케팅(Marketing), 생산(Production), 품질 관리(Quality Control), 연구개발(R&D), 지원(Support) 등 각 현장에서 해

답을 찾는 ‘MPQRS’를 강조했다. 각 사업장 생산설비 공정 진행 현황을 살피며 안전한 사업장 관리와 수준 높은 사고 대응 체계 수립 및 운영도 주문했다.

이를 위해 코오롱인더스트리는 전자적으로 ▲위험성 평가 수준 향상 ▲사업장 유해 요소 선제적 제거 ▲상생합심 기반으로 안전관리 책임강화를 실천한다는 전략이다.

코오롱인더스트리 김영범 사장은 “올해는 근본적 체질 개선의 원년으로 기본에 충실한 현장 중심 경영을 통해 제조·기술력·조직 모든 면에서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라면서 “임직원의 목소리는 더 크게 듣고 현장에는 더 가까이 가겠다”라고 말했다.

/김재용 기자 juk@



LG전자는 탈취 성능을 높인 LG퓨리케어 360 공기청정기 알파를 출시한다.

LG전자, 공기청정기 탈취성능 2.5배 강화

LG 퓨리케어 360° 공기청정기 알파

LG전자 공기청정기가 탈취 성능을 더 높였다.

LG전자는 17일 2023년형 LG 퓨리케어 360° 공기청정기 알파를 출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제품은 강력한 탈취 성능을 앞세웠다.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자체 조사를 실시한 결과 70% 이상이 높은 탈취 성능을 원한다는 것을 파악한 결과다.

LG전자는 이를 위해 차세대 필터 ‘G

필터’를 개발했다. TUV 라인란드와 시험 결과 암모니아와 초산, 아세트 알데히드 등 3종 유해가스 누적 정화량이 종전 대비 2.5배나 많았다.

인공지능+기능으로 절전 효율도 높였다. 공기질이 ‘ 좋음’ 상태로 5분에서 10분간 지속되면 내부 팬을 끄고 디스플레이 밝기를 낮추는 등 최저 소비 전력으로 운전하는 원리다.

/김재용 기자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쌍용차, ‘코란도 이모션’ 등 유럽공략 본격 시동

벨기에 브뤼셀 유러피안 모터쇼 출격
올 뉴 렉스턴·티볼리 등 5종 전시

쌍용자동차가 유럽 시장 공략에 속도를 높인다.

쌍용차는 14일부터 22일까지 벨기에 브뤼셀 엑스포에서 열리는 ‘2023 브뤼셀 유러피안 모터쇼’에 참가해 코란도 이모션, 올 뉴 렉스턴, 코란도, 티볼리, 티볼리 에어 등 5개 모델을 전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쌍용차는 지난해 12월 재 생산을 시작한 첫 전기차인 코란도 이모션을 벨기에 시장에 선보이며 본격적인 유럽 시장 공략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코란도 이모션은 패밀리카로 손색 없는 거주공간과 활용성을 갖춘 국내 첫 준중형 SUV 전기차로 최대 출력 140kW(190ps), 최대 토크 360Nm(36.7kg.m) 모터를 탑재해 강력한 퍼포먼스를 발휘하며 1회 충전시 최대 주행 가능 거리는 339 km (WLTP 유럽 기준)이다.

쌍용차는 지난해 유럽시장 등에서 꾸준히 제품력을 인정 받으며 수출 4만 5294대를 기록해 지난 2016년(5만 2290대) 이후 6년 만에 최대 실적을 달성한 바 있다.

앞서 지난해 11월 칠레 토레스 델 파이네 국립공원에서 미디어를 초청한 토

레스 글로벌 시승행사를 시작으로 지역별 주요시장에서 토레스 인지도도를 제고하는 한편 본격적인 글로벌 판매에 박차를 가해 나갈 계획이다.

쌍용차 관계자는 “지난해 유럽시장 등에서 꾸준히 제품력을 인정 받으며 2016년 이후 6년 만에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며 “올해는 브뤼셀 모터쇼를 통한 유럽시장 공략을 시작으로 기존 시장에 대한 판매 네트워크 재정비는 물론 신시장 개척과 시장 다변화 전략 등 글로벌 시장 공략 강화를 통해 지난해 판매 성장세를 이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

HD현대 건설기계3사, 구매대금 조기지급

2400억 규모 명절 앞두고 상생경영

HD현대 건설기계부 3개사가 협력사에 납품 거래 대금을 조기 지급하며 상생 경영에 나섰다.

현대제뉴인, 현대건설기계, 현대두산인프라코어 3개사는 설 명절을 앞두고 2400억원 규모의 구매대금을 협력사에 조기 지급한다고 16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3사의 원자재, 부품, 소모품 등을 공급하는 중소, 중견기업 820곳이다. 현대두산인프라코어 협력사들은 1월말에 지급하던 대금을 18일로 앞당겨 지급하고, 현대제뉴인과 현대건설기계는 1월 1일부터 15일까지 납품한 자재 대금을 1월 20일에 조기 지급함으로써 협력사들은 최대 11일 빨리 납품대금을 받게 된다.

/양성운 기자